

C_F_004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

① 개요

어떤 사람이 아홉 번 과거시험에 낙방하고 좌절하여 죽으려고 할 때 지나가던 한 노인의 도움으로 과거시험에 합격한 선비 이야기로 남원읍 의귀리에서 전해온다.

② 내용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과거시험에 아홉 번이나 응시했는데 떨어지자 살아갈 용기를 잃고 목을 매어 죽으려고 했다. 때마침 백발노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선비의 사연을 듣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노인은 선비에게 “내일 특별시험이 있을 테니 시험관이 문제를 내면 ‘매 연자(鳶字)’라 대답하면 합격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다음날 고사장에서 시험관이 문제를 내기도 전에 선비는 ‘빙빙 연’이라 말을 해놓고 나니 당연히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고사장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때 모르는 응시생을 만나자 자신은 오답을 말했지만 그대는 정답을 말하라고 알려준다. 결국 한 응시자의 지혜로 두 사람 모두 과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③ 특징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설불리 낙담하지 말고 침착하게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④ 핵심어

과거, 특과, 낙방, 어떤 노인, 신선, 매연, 어떤 선비, 시골말

⑤ 원전 서지사항

과거보는 선비 이야기(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11집, 1992)

⑥ 관련 자료